

작품 내용

제 목	내 이름으로 끝나는 문장
내 용	스마트폰 액정이 뿔어내는 광원이 삼 평 남짓한 방 안의 사물들을 서늘하게 색칠 한다. 정적 속에서 검지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새벽바람보 다 더 시린 문장들이 안구에 박힌다. 원치 않는 메신저 인터페이스 업데이트가 강 제된 아침, 화면 상단에는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들의 변성하는 생(生)이 일방 적으로 나열된다. 고시학원 생활을 함께 버텼던 대학 동기의 서툰지만 유쾌해 보이 는 범인 입사 브이로그가 흐르고, 의도하지 않고 보게 된 몇 년 전 절연한 전 여친 의 화사한 휴양지 사진이 기습적으로 스마트폰 전면을 채운다. 졸업 이후 단 한 번 의 안부조차 없던 고등학교 동창 높이 지 결혼한다고 불쑥 던져둔 모바일 청첩장 링크 위로 손가락이 무겁 게 멈췄다. 화면 너머의 세계는 저마다 과속 중인데, 내 방의 시곗바늘은 톱니가 고장이 라도 난 듯 완강하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옷깃 사이에서 끈적하 게 굳어갈 때, 아무도 창살을 채우지 않았으나 누구도 쉽게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고립의 무 게가 명치를 누른다. 안압이 팽팽하게 차오르며 스마트폰 액정 밖의 벽지가 비대칭 으로 일그러진다. 고개를 들자 그 단단한 고립의 벽을 비집고 모니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검은 창이 열려 있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위로 정중하고 매끄러운 단어 들 이 순식간에 차오른다. 어떤 서툰 문장을 던져도, 밤이 깊어 문장이 두서없 이 꼬여도 기계는 지 치지 않고 정갈한 어휘로 다듬어 내밀었다. 엉킨 사유 를 던지면 차분히 인과를 맞 추고 구조를 세웠고, 막막한 주제를 입력하면 방향과 자료, 문단의 배치까지 일목요 연하게 제안하는 군더더기 없는 도구 였다. 세상의 무수한 거절과 차가운 침묵에 익 숙해진 이에게 기계가 보여주는 즉각적인 반응은 인공지능에 대해 막연한 벽을 세 웠던 경계심의 빗장을 헐겁게 풀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끝에 점차 기계적 인 가속도가 붙 는다. 타진음이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울수록 사유의 노동을 기계에 대행시 키는 풍경은 자석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기술은 골치 아픈 사유의 마찰 을 면제하며 효율의 정점을 손에 쥐여주는 듯했다. 균열은 가장 예리한 창작의 밤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 던 새 벽, 인공지능은 문맥의 흐름을 예리하게 관통하는 어떤 구절을 건넸 다. 손가락 끝이 키보드 위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컷가에서 혈류 소리가 둔 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 다. 너무나 매끄럽고 정교한 문장이었기에, 도리어 뒷목의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지 는 이질감이 먼저 찾아왔다. 기시감에 그 구 절을 복사해 검색창에 입력했다. 몇 초 뒤, 화면에 출력된 결과들을 마주 한 동공의 초점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기계가 “당신만을 위한 독창 적 사유” 라 추천하며 내밀었던 문장은, 어느 기성 작가의 오래 된 수필집과 흘러간 대중가요의 가사를 교묘하게 이어 붙인 짜깁기의 결과물, 즉 타인의 사유를 찢어발겨 기워 붙인 알고리즘의 시체 조각이었다. 그럴듯한 문장 배 치가 언제든 사실과 권리의 경계를 흐릴 수 있음을 목격한 순간 모니터의 빛

이 송곳처럼 안구를 찔렀다. 편리와 자동화라는 미명 아래 누군가의 피와 땀이 서린 궤적이 여과 없이 소비되고 있다는 자각이 드는 순간, 손가락 끝의 온도가 급격히 하강했다. 검은 화면 뒤에 숨은 무수한 창작자 유령들의 기척에 어금니가 가볍게 맞 부딪혔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그제야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얼굴로 다가왔다. 한 줄의 문장에는 누군가가 창백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쳐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유구한 시간이 고여 있다. 한 장의 사진에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기다린 창작자의 검지 손가락 끝의 미세한 떨림이 담겨 있으며, 한 편의 글에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마른침을 삼키며 문장을 버린 흔적이 새겨져 있다. 인공지능이 건넨 문장을 검증 없이 받아쓰는 행위는 타인의 표현에 기대어 그 시간의 주인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가혹한 지우개질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쓰는 글이 정말 나의 내면에서 밀어 올린 것인지, 아니면 기계의 정교한 도용에 무감각하게 동참한 결과물인지 경계선이 흐려질 때 창작자의 실존적 자리는 소거된다. 저작물을 존중하는 선(線)은 기술의 속도보다 빠르게 내면에 들어 차야 마땅했다.

청년은 모니터를 완전히 끄지 않았다. 기술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가 던지는 질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새 창을 연다. 문장의 출처를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한다. 화면 속에 남아 있던 낯익은 타인의 표현들을 차분히 도려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칸 앞에서 청년은 오래도록 머물렀다. 빠른 결과물보다 늦더라도 책임 있는 태도가 창작자에게 더 필요하다는 자각이 손등의 핏줄을 타고 흐른다. 쉽게 얻은 문장에 기대어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창작을 흐리지 않기 위해 이제 조금 느리게 쓰기로 마음먹는다. 책상 구석에 놓인 손때 묻은 자료집을 펼쳐 들고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로 빈 곳을 채운다. 흑연 가루가 손가락 끝에 거칠게 묻어난다.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빠르고 그럴듯한 문장을 무수히 건네주겠지만, 그 문장의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도 되는지 묻고 판단하는 것은 끝내 인간의 몫이다. 서툴고 느릴지라도 스스로 고민하며 채워 넣은 흔적만이 진짜 나의 조각이 된다. 이번만큼은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끝나는 문장을 남기기 위해, 청년은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다.